



내달 신계사 성지순례 합의

조계종, 조불련과 3대 합의·6대 사업 이끌어내

1월 30일~2월 2일 평양을 전격 방문했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북측과 3월 신계사 성지순례 및 불교문화재 복원 등 포괄적 교류확대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고 귀국했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기획실장)과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대표단 방북 브리핑'을 열고 △북측 불교문화재 복원보수 사업 △2011년 해인사 팔만대장경 1000년 기념 협력사업 △세계불교대회 공동참가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조계종과 조선불교도련맹(위원장 심상진, 이하 조불련)은 합의문에서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 △평양 불교문화재 건립 지원 △남북 사찰 결연·교류사업 △부처님오신날 묘향산 보현사 및 평양 남북불교도합동법회 봉행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 기념 금강산 신계사 합동법회 봉행 등 남북불교 6대 논의사업도 명시했다.

원담 스님은 "조불련과 남북불교 등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1일 사회부장 혜경 스님과 리규용 조

불련 부위원장이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측에 지속적인 남북 교류와 대화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북측이 '조불련을 통해 총무원장 스님이 재방북해 줄 것을 제안하겠다'고 했

고, 종단은 조불련 요청이 있을 시 형식을 갖춰 재방북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를 남북불교 교류를 위한 단일 창구로 지정하고 조불련과 합의된 남북협력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노덕현 기자

#조계종·조불련 3대 합의사항

1. 양측은 우리민족문화의 자주성과 우수성을 빛내기 위해 북측지역의 불교문화재 복원보수와 유지관리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2. 양측은 2011 팔만대장경 목판제작 1000년을 맞으며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3. 양측은 국제무대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조계종과 조불련 6대 논의사업

1. 금강산 신계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성지순례 등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2. 평양시내에 불교화관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3. 남북 사찰과 북측 주요사찰간의 결연을 통해 교류협력을 시행한다.
4. 2010년 부처님오신날 평양 광범사 또는 묘향산 보현사에서 남북화해와 단합을 위한 남북불교도합동법회를 봉행하도록 노력한다.
5.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금강산에서 남북불교도합동법회 또는 남북 동시법회를 봉행하도록 노력한다.
6. 남북 불교단체와 조불련 간에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입춘 맞아 부처님 씻어드리기 법회

2월 4일 입춘을 맞아 서울 역촌동 열린선원(선원장 법한)은 불상에 먼지를 털어 '부처님 씻어드리기(浴佛)'이 색 법회를 봉행했다. 신도들은 이날 법회에서 비리만 했던 불상을 직접 손으로 옮겨 붓으로 먼지를 정성스럽게 털어냈다. '부처님 씻어드리기 입춘법회'는 부처님이나 삼재불이로 한해의 재앙을 막는 것이 아닌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는 자세, 항상 마음을 닦는 수행자의 자세로 한해를 살아갈 것을 발원하는 법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사진=박재민 기자

국정원 조계사 압력 후폭풍 거세

경불련 등 11개 불교단체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 조계종도 유감

국정원 직원에 의해 조계사 행사가 철회된 사건을 불교단체들이 '공권력에 의한 조계종단 자주성 훼손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될 조짐이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조계종 종무원조합 원우회,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청정승가회 위한 대중결사, (사)보리, 사찰생태연구소 등 11개 불교단체는 2월 2일 조계사 입주문 앞에 '국정원의 탈법 및 종교탄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불교단체들은 '시민의 자율적인 행사와 종교의 권위마저 짓밟은 국정원의 조계사 사찰을 현 정부에 의한 민주질서 파괴라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하의 회견문에서 "시민의 행사가 국가기관 외압으로 취소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

사표현의 자유마저 용납하지 못하는 편협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국정운영기조를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국정원장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불교단체들은 "민심을 잃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보살행을 실천해야 할 불교가 시민의 자유를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심장인 조계사가 권력에 의해 유린됐다"는 점에 대해 한없이 부끄럽다"며 "국정원의 반사회적·탈법적인 월 2일 조계사 입주문 앞에 '국정원의 탈법 및 종교탄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불교단체들은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 보장 △국정원의 민간 사찰에 대한 대통령 공개 사과 △실정법 위반 책임에 대한 국정원장 자진 사퇴 △불필요한 기관권의 전국 사찰 출입에 대한 조계종 총무원의 강력한 대처 등을 촉구했다.

회견문 발표에 앞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이번 사건은 현 국정이 MB 위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반대와 문제제기 등에 대해 (대화가 아닌) 공권력을 통한 해결을 일삼은 결과"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MB의 국정운영 기조가 국민 화합과 소통, 수용으로 변화하길 기원한다"고 촉구했다.

불교단체들은 정부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18일을 즈음해 조계사에서 (가칭) '종단 자주성 수호·MB정부 규탄법회'를 개최하는 한편, 순차적으로 대정부 규탄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이에 앞선 1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사 행사에 대한 국정원 개입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기관의 조계사 출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4대강 의견 경청" 자승 스님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4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공동집행위원장 최영찬 외) 소속 교수들의 예방 자리에서 "수경·지관 스님께서 불교계 대표로 활동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은 귀담아 들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예방한 운하반대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은 "종교계에서 힘을 보태 환경 재앙을 막게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조계종 환경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환경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불교환경연대가 3월 4일 개최하는 심포지엄 등에서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령

위촉
임연대 논설위원
김재경 논설위원

자승 스님 "남북교류 이유불문 지속돼야"

"남북불교 교류를 포함한 민간 교류 활성화에 북측과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민간교류는 한계가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시동을 걸어야 할 시점이다."

취임 첫 해외순방으로 평양을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2일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귀국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계종단이 나서) 남북불교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정부차원의 교류 확대를

촉구했다. 스님은 "같은 민족으로서 남북교류는 이유를 불문하고 지속돼야 한다"며 "직접 북한에 가서 보니 속히 남북교류 사업의 재개를 원하는 북측 입장을 느꼈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이날 "남북교류 협력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물질·재정적 뒷받침도 중요하다"며 향후 종단 차원의 남북교류 기금 마련에 대한 불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도 당부했다.

이번 방북에서 자승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대표단은 평양 광범사를 참배하고 덕동 폐지공장, 정성의화중합성센터 등 남북협력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또, 환영·환송만찬 등을 통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최성익·한영만 부위원장과 조선불교도련맹 심상진 위원장, 리규용 부위원장 등을 만나 남북불교 교류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8 현장-2010 내나라 여행 박람회 ▶14 선지식-동원 스님 ▶8 인터뷰-법안 스님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지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려사 연등 지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C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사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중등 주문 받습니다(사절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중등

육바리밀 만월등(육바리밀 주름등) 팔각봉촉접등 중등

창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